



### 안치홍, 롯데와 4년 최대 56억원 계약

KIA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프리에이전트(FA) 안치홍이 6일 전격적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4년 최대 56억 원의 조건이지만, 첫 2년 계약 종료 후 선수와 구단이 각각 옵트아웃과 바이아웃 옵션으로 계약 유지 또는 결별을 선택할 수 있는 'ML식' 계약이다. KBO 역사에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파격적인 내용이란 평가다. ▶ 관련기사 3면

### 이정후, 3억9000만원...류현진 또 넘었다

키움 이정후가 KBO리그 4년차 역대 최고액인 3억9000만 원에 2020시즌 연봉 재계약을 마쳤다. 지난해 2억3000만 원보다 69.6% 오른 금액이다. 종전 4년차 최고 연봉은 2009년 한화 류현진의 2억 4000만 원. 이정후는 앞서 2·3년차 최고액도 경신한 바 있다. ▶ 관련기사 4면



# 스포츠동아

2020년 1월 7일 화요일  
sportsdonga.com 10판



'기생충'으로 6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베벌리힐스의 베벌리힐트호텔에서 열린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 송강호, 조여정, 이정은 등 객석에 앉은 주연배우들을 향해 손짓하며 기뻐하고 있다. LA(미국) | AP·뉴스시스

## '기생충' 한국영화 첫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새 역사

# “1인치 자막 장벽 깨자” 세계를 뒤흔든 봉준호

“우리가 쓰는 하나의 언어는 바로 영화”  
트로피 안고 명소감...객석 환호 터져  
할리우드 최고 상까지 거머쥔 '기생충'  
내달 10일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 ↑

“자막의 장벽, 1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영화라는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니까.”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권위의 또 다른 영화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거머쥔 봉준호 감독이 “하나의 언어는 영화”라고 말하자 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그의 연출작 '기생충'이 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 LA 베벌리힐트호텔에서 열린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직후 풍경이다.

'기생충'이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에 이어 세계 영화시장의 주류 무대인 할리우드에서

또 하나의 수상 쾌거를 올렸다. 작품성을 우선하는 국제 영화제 수상을 넘어 대중성까지 중시하는 할리우드의 최고 권위 시상식에서 한국영화가 일군 역사적인 성과이다.

### ●한국영화...‘아시아 시네마’ 넘어 ‘글로벌 시네마’

'기생충'은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비롯해 감독상과 각본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마틴 스코세이지, 쿠엔틴 타란티노 등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감독들과 나란히 후보에 올라 거둔 탓에 아쉽게 외국어영화상만을 수상했다. 그렇다고 의미가 축소되는 건 아니다. 100% 한국어 대사, 한국배우들과 한국 제작진의 한국영화가 거둔 전무후무한 대기록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기생충'의 수상은 봉준호라는 한 감독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영화가 아시아 시네마를 넘어 글로벌 시네마로 그 위치가 달라졌음을 증명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유력하게 거론된 감독상을 수상하지 못한 것은 영화 '1917'로 작품상과 감독상을 차지한 “샘 멘데스 감독이나 할리우드 감독들의 영화 스승으로 통하는 마틴 스코세이지 같은 이들이 포진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 골든글로브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영화와 TV 통합 시상식. 작품상과 남녀주연상에 한해 영화를 '뮤지컬·코미디'와 '극영화' 2개 부문으로, TV는 '뮤지컬·코미디' '드라마' '미니시리즈·TV영화' 3개 부문으로 각각 나눠 시상한다. 1944년 영화 시상식으로 출발해 1955년부터 TV 분야로도 영역을 넓혔다. 외국어영화상은 1950년 도입됐다. '기생충'은 골든글로브 역사상 69년 만에 첫 한국영화 외국어영화상 수상작이 됐다.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 시상식 직전 열려 그해 아카데미상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면서 명성을 쌓았다.

# 홀덤 토너먼트는 스포츠다

이제는 더 이상 홀덤을 숨어서 하는 시대가 아니다!  
남녀노소 안전하고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KMGM**으로 가자!

- ◆ 홀덤 콘텐츠를 기반으로한 외식프랜차이즈
- ◆ 수익률 30% 이상
- ◆ 새로운 블루오션 신사업
- ◆ 각종 권역별 대회 및 국제대회 참가 가능
- ◆ 완벽한 실내 디자인팀 구성
- ◆ 현금성 게임시 1OUT 제도 실시 (안전성 보장)
- ◆ 전국 최다 협찬사 보유
- ◆ APC, APT, APL, WSOP, APPT, WPT 등 국제대회 참가자격 획득



**KMGM**  
HOLD'EM & EVENT PUB

전국 최대! 홀덤 & 이벤트펍 창업문의

1644 - 6890